

# '영광형 노인통합 돌봄' 시행... 사각지대 해소

10개 읍·면 간호직 공무원 배치  
월 3회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등

영광군이 관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역의 특색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며 돌봄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0일 영광군에 따르면 민선 8기 공약 사항인 통합돌봄시스템 운영을 위해 2023년 통합돌봄 전담팀을 신설해 '영광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10개 읍·면사무소에 간호직 공무원 배치와 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해 본격적인 영광형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영광형 통합돌봄 사업은 군민 한 분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돌봄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요양, 건강관리, 일상생활 지원, 주거 등 돌봄서비스와 재가 의료서비스를 연계하고,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영광형 통합돌봄 세부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통합돌봄창구 운영, 방문의료서비스, 케어플러스 봉사단 운영, 맞춤형

영양도시락 지원,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공모를 통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던 맞춤형 영양도시락 지원은 2024년에는 군비 1억8900만원을 확보해 병원 퇴원 후 거동 불편으로 식생활 독립이 어려운 독거노인, 만성질환 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주3회 이상 질환별 맞춤형 영양식을 제공한다.

식단관리,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어르신들의 영양을 개선하고 통합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신규시책으로 65세 이상 노인 중

병원 퇴원 후 병원 이용에 보호자 동반이 어려운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월 3회 이내로 최대 1년까지 '병원 동행매니저'를 파견하여 접수·수납, 진료 및 입·퇴원 등을 도와주는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어르신이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지역자원을 활용해 영광형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서비스를 확대 지원하여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교육  
화순군, 2월부터

화순군은 심정지 등 응급상황 시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프로그램'을 오는 2월부터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응급처치 기본 이론뿐 아니라 교육용 마네킹과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용해 1:1 실습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지역주민·기관단체·학생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방식으로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교육받을 수 있다.

심폐소생술 교육 신청은 보건소 의약 관리팀(061-379-5364)으로 전화 문의 하면 된다.

화순군보건소 관계자는 "매년 심정지 환자는 늘어나는 추세이며 응급상황 시 처음 목격자가 빠르고 적절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생존율을 2배 이상 높일 수 있다"며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화순군은 심정지 등 응급상황 시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군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화순군 제공

## 전남개발공사 "목포대·순천대 공동 단일 의대 추진 환영"

내년 국고 건의사업 발굴  
장성군, 50억 2660억 규모

장성군이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국고지원 건의 사업의 선제적 발굴과 사업 추진에 쓰일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장성군은 '2025년도 국고지원 건의사업 발굴보고회'를 갖고 국비 확보를 위한 선제적 준비에 돌입했다고 30일 밝혔다.

부서별로 신규·계속사업을 비롯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전환사업 분야 발굴 사업의 국고 확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전략 수립 방안을 논의했다.

장성군이 발굴한 내년도 국고지원 건의 사업은 50건에 사업비는 2660억원 규모다.

확정한 신규사업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369억원)', '신촌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161억원)', '매립 시설 순환 이용 정비(116억원)',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97억원)', '황룡전 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56억원)' 등이다.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사업은 올해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쓰일 국비 3억 3000만원을 이미 확보했다.

장성군은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과 같은 '계속사업' 국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성=유봉현 기자



예불과, 지방의료원이나 응급의료기관은 최소한의 의료 인력을 구하지 못해 문을 닫는 경우가 늘고 있어 공공 의료 사령탑 역할과 의료 인력 공급을 위한 국립의대 설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빼고 전남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없으며 필수·공공의료

체계 붕괴를 막을 길이 없는 만큼 정부는 관련 정책에 의대 신설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장충모 사장은 "공동 단일의과대학이 설립되는 날까지 도민과 관계 기관, 대학이 협력을 이어가기를 희망한다"며 "도민 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양대학과 함께 전남개발공사도 공동 단일 의과대학 설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간재 기자

## 나주시, 연말까지 교통약자 편의제공 저상버스 보급률 27% 확대

내달부터 47인승 5대 운행

나주시가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5대를 도입했다.

내달 1일부터 운행하는 47인승 버스로 '혁신도시-나주역-나주터미널-동신대 학교' 노선을 경유하는 7000번, 7001번, 7002번에 도입된다.

30일 나주시에 따르면 저상버스는 차체가 낮고 출입구에 계단이 없는 버스로 엘리베이터와 함께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성을 높이는 대표적인 '배리어프리(무장애)' 장치로 꾸힌다.

저상버스 도입으로 버스 탑승 계단을 오르기 힘들었던 교통약자들의 대중교통



나주시가 도입한 저상버스. 나주시 제공

이용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시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적용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른 버스 폐차 또는 교체 시 저상버스 도입의

무화로 저상버스 증차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도 올 연말까지 20대를 추가 도입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번 저상버스 5대와 전기 저상버스 20대가 도입되면 현재 나주시 저상버스 도입률은 27%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윤봉태 나주시장은 "대중교통은 단순 이동수단이 아닌 시민을 위한 교통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우리 지역 교통 약자들의 이동 편의 제고는 물론 더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 기자

'정정전남 유품마을' 모집  
함평군, 내달 2일까지 35곳

함평군이 2024년 '정정전남 유품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 신청을 오는 2월 2일까지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정정전남 유품마을' 만들기는 '내 마을은 내 손으로 깨끗하고 아름답게'라는 슬로건 아래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주도하는 주민 회합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마을 가꾸기 특화사업이다.

유품마을로 선정된 마을은 해마다 500만 원씩 3년간 총 1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며, 우리 군은 올해 신규 35개 마을을 포함하여 124개 마을이 참여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은 다음달 2일까지 사업계획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작성해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군에서 자체 검토 및 우수사업 계획 선정 등 관련 절차를 거친 후 2월 중 최종 사업 참여 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함평군에서는 134개 마을이 참여해 공동체 활동을 통해 마을자치를 실현했으며 그중 5개 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전남도로부터 200만 원의 추가 사업비와 우수마을 현판을 수여받는 등 활동을 통해 성과를 올렸다. 함평=신재현 기자

LED 경광등·야광 반사판 보급  
영광군, 어민에 전국 최초

영광군은 전국 최초로 조업 중 어선의 안전사고 예방과 야간 항해 시 안전 운항을 지원하기 위해 어선에 LED 경광등 및 야광 반사판을 보급했다고 30일 밝혔다.

영광군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어선 108척에 LED 경광등 134대와 야광 반사판 202장을 보급해 조업 중인 어선과 야간 항해 어선의 위치 파악이 원활하게 했다.

이를 통해 운항 중인 주변 선박과의 충돌 사고를 사전 예방하여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항내에 정박 중인 여러 어선이 일제히 경광등을 밝힐 경우, 야간 경관조명으로 활용되어 어촌과 어항 그리고 어선이 어우러진 이색적인 불빛을 감상할 수 있는 볼거리 제공도 기대된다. 영광=김도윤 기자

봄철 산불예방 진화대 발대식  
곡성군, 내일부터 산불조심

곡성군은 30일 '산불ZERO'를 목표로 '2024년 봄철 산불예방진화대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은 군산불기계화진화대원과 읍면 산불 예방진화대원, 산불담당 공무원 등 90여 명이 참석, 이귀동 부군수의 격려사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장의 결의문 낭독, 산불방지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곡성군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지정하고, 4개 월간 군과 11개 읍·면사무소에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운영, 산불경보 단계별로 비상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산불진화대원들은 무단입산자와 불법 쓰레기·논밭 소작 등을 단속하고, 산불취약지와 산림인접지를 집중적으로 예찰하는 등 산불예방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곡성=김대영 기자